

경제

“1만원의 행복이 이만큼이나?”...예술가 지원한 후 일어난 일

고보현 기자 hyunkob@mk.co.kr

입력 : 2022-12-07 11:14:53 수정 : 2022-12-07 21:46:13

전주문화재단 후원회 ‘이팝프렌즈’
기업과 시민들 성금 모아
3년간 예술가 70명 지원
예향의 도시 자부심 높여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가 개최하는 ‘전주다북 음악회’에서 지역 시민들이 연주회를 즐기는 모습. <사진제공=전주문화재단 >

“문화 예술 후원은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거나 엄청난 고액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예술가를 응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게 후원이에요.”

코로나19가 공연계를 할퀴고 지나간 지난해 5월 전주문화재단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모금문화 지원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됐다. 전주와 팔복동을 상징하는 이팝나무에서 이름을 딴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가 만들어졌다.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가 개최하는 '전주다복 음악회'에서 지역 시민들이 연주회를 즐기는 모습. <사진제공=전주문화재단 >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과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담당하던 미래전략팀이 일년 동안 발로 뛰어 모은 성금은 약 1억 원. 해당 모금액은 이팝프렌즈 시상식을 통해 전도유망한 예술인에게 수백만원 규모 활동지원금으로 돌아가고 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예술가들은 '전주다복 음악회' 등을 열어 시민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는 자리를 가진다. 210여 명의 시민과 14개 기업의 정기 후원, 전주문화재단의 노력이 합쳐져 이뤄낸 선순환이다.

이 같은 결실을 인정받아 전주문화재단은 지난 2일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2022 문화예술후원인의 밤'에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전국 130여 개 문화재단 중 네번째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이자 기초재단 중에서는 최초 수상 사례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나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선정 전주문화재단 미래전략팀장은 "전주문화재단이 지난해까지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위해 토양을 다지고 씨를 뿌려왔다"며 "이제부터 예술로 우리 지역을 변화시켜 더욱 본격적인 결실을 쌓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화예술 후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예술인 후원에 가졌던 강력한 의지가 컸다. 그는 "전주 시민이라면 전주 예술가를 위해 한 달에 만원이라도 낼 수 있게 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고 싶다"는 뜻을 가졌다. 전주문화재단이 지난 3년간 후원한 예술인은 70명에 달한다.



전주문화재단이 환경예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예술을 통한 생태위기의식 확산 프로그램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모습. <사진제공=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구성원이 지역 내 문화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 또한 높다. 김 미래전략팀장은 “전주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을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은 곳”이라며 “판소리 공연에서 어르신 관객이 넣는 추임새까지도 하나의 작품이 되는 예향의 도시다.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재단이 돕고자 한다”고 애정을 표했다.

문화예술 후원 사업의 주축인 ‘이팝프렌즈’를 통해선 진주 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지역 문화사업을 돕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생활을 발전시키고 있다. 주목받는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이팝프렌즈 예술상 시상식’과 후원회 목적사업인 ‘전주다복 음악회’, 예술을 통한 생태위기의식 확산 프로그램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후원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만들어 예술가와 시민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주문화재단 측은 “예술가의 창작과정을 시민이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인맥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모금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술가와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한 팔복예술공장 전경. <사진제공=전주문화재단>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강 세빛섬에서 개최한 ‘2022 문화예술후원인의 밤’에는 문화예술 후원기업과 후원자, 수혜 예술단체 등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예술의 가치에 공감하고 예술나무를 통해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예술나무운동’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이밖에 관련 후원기업과 후원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우수한 문화예술후원 사례를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연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2022 문화예술후원인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김호영기자]